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04년 주보 광고

- <1월 11일> 아기 김은혜(김경일, 이선혜 집사). 백일을 맞아 '백일 떡' 을 오늘 Tea Time 시간에 준비하였습니다
- <2월 1일> 송용철 집사, 예배시마다 제자리 지키시다가 한국으로 귀국. 안녕하...
- <2월 8일> 이종인, 현순진 성도. 첫 딸 순산
- <2월 15일> '은 십자가 성가대' 시작(1여선교회). 예전 그 맑았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워진 신앙과 삶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 <2월 22일> 내일부터 부활절 봉헌 "영어성경쓰기" 를 시작합니다
- <3월 28일> '자녀위한 특별새벽기도회' 3월 29일-4월 10일
- <5월 9일> 지난번 수해복구지원헌금을 보내 드린 Bulls의 Wherico Church에서 고마움의 편지가 왔습니다
- <5월 23일> 윤형권 집사의 "시온합창단 기금모금을 위한 고추장, 된장 판매" (집집마다 고추장을 넉넉하게 했던 그도 이제는 추억의 교우로 남았습니다)
- <6월 6일> 청년들의 교육관련축모금을 위한 음식판매가 있습니다(떡볶기, 어묵등)
- <6월 13일> 비로 연기되었던 테니스를 좋아하는 교우들의 친선Game이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오르간 수리 헌금으로 \$55,640.44이 5월한달간 헌금되었습니다
- <6월 20일> 이진례 집사(한정옥 집사 시모)께서 지난 19일 소천
윤하나 집사 가정: Hamilton으로 이사합니다(24일)
- <6월 27일> 금주 수요예배는 첫 "수요수도원" 으로 갖습니다
- <7월 11일> 오늘은 창립기념 "전교우 운동회" Avondale College Stadium
금주 토요일 5pm부터 "부모님 앞에서 감사의 Concert". Pump House
- <8월 15일> 오늘 식사는 '콩나물국밥' ... (이후 콩나물 밥으로 이어진 콩나물 시리즈의 효시였습니다)
- <9월 26일> "성령과 찬송 부흥회" 27일(월)-28일(화). (모처럼 복을 치면서 찬송가로만 찬양한 옛날 부흥회였습니다)
- <11월 21일> "자녀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 를 마쳤습니다
바나와투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축구공과 펌프 3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 <11월 28일> 선교회 총회를 여는 주일입니다
- <12월 19일> 오는 토요일에 "성탄 축하의 밤" 을 갖습니다. Pump House
성탄예배는 조금 피곤해도 새벽 12:30분에 드리겠습니다

『바보 같은 교회』!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처럼 우리도 세상의 눈에는 우둔하게 보이는 하늘의 믿음을 믿자고 시작했던 2004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주님 마음에 드는 믿음인지 아직도 정답은 못찾았지만 단 한 가지, 제대로 믿고 싶고 올바르게 따르고 싶다는 마음속의 중심만큼은 모두의 눈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앞에만 무릎꿇겠습니다.

함께 세상을 향해 그 무릎에 힘을 더해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2004년	송구영신 예배	11pm 31.Dec. 2004
☎369-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나이와 잦다



지나고 보니 내 한살때는
 1cm자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싸고 울고 딱 1cm자였습니다.
 열살때는
 10cm자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놀고, 따라하고, 싸우고..
 20살때는
 20cm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뼘정도 넓어진것 같지만
 이해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내주장이
 훨씬 더 강했었지요.
 차츰 자라 마흔이 되었을 때는
 확실히 스무살때 보다는 배정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짧고 좁고 얇습니다.
 웬만한 것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살이 되면
 60cm가 아니라 6m짜리 자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일흔에는
 7m가 아니라 700m 자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펼쳐다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오는 자.
 어떤것이러도
 다 이해되고 받아 들이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자미상-

2004

송구영신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4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3 (계 2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41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인도자
	성찬식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90:1-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우리 날의 계수	김성국 목사
합심기도		다 같이
찬송 Hymn	460장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월의 예배위원◆

◆1월의 교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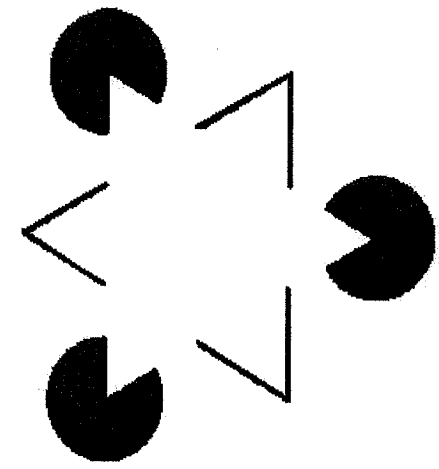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	은심자가
2	김종건	강동호	1구역	4남여
9	노은숙	강은미	2구역	3남여
16	박일영	강현정	청년부	4남여
23	이광의	경덕현	3구역	3남여
30	이규임	권정호	4구역	2남여

주 일	예배와 모임
2	신년, 성찬주일 송구영신예배(31)
9	학생부캠프
16	식사친교주일 연합제직세미나(20)
23	수요예배개강(26)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 정기회의(30)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세 개의 동그라미 안에는 실제로는 없는 흰 삼각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3개의 동그라미와 선으로 그려진 삼각형 때문에 일어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들려준 얘기로 이웃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마치 사실인양 잘못 알고 있는 않는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25)

◀착한 시인들▶ 기도하다 좋다
 백은하

울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영덩이는 쳐들고 얼굴은 바닥에 붙인 채로
 꾸욱, 잠이 들어서
 얼굴 한 쪽이 겨울 아이처럼 붉게 놀리고 주름이 쳐서,
 너는 언제 심각하였느냐, 혼자 거울을 보며 웃었다.

아무리 심각해도 풀린 걸 막을 방법 없고
 아무리 속상해도 배고픈 거 잊을 리 없다.

누가 그랬더라, 운명은 공평하지 않지만 유머가 있다고.

내년에는 꼭 해 보고 싶은 것
 “기도하다 좋아보기,
 성경읽다 옆드려 자며
 침 흘려보기,
 우리교회 예배에 양복 안 입고 회중석에 앉아 예배보기,
 꼼짝 않고 하루종일 성경만 읽어보기,
 그리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잠들어 보기”